

유류저장소 대낮 3인조 강도

광주 광산서...마스크 쓰고 침입 2분만에 9,500만원 강탈 도주

대낮에 3인조 강도가 유류저장소에 난입해 1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14일 낮 12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S 유류저장소 사무실에 마스크를 쓴 3인조 강도가 침입해 혼자 있던 종업원 이모(46)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케이블 타이(Cable Tie)'로 불리는 플라스틱 끈으로 이씨의 손과 발을 묶고,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중이던 현금 9천500만원을 빼앗은 뒤 흰색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피한들은 S 유류저장소 사장과 동종업계 사장인

A씨가 현금 9천500만원을 전달해 놓은 뒤 불과 10여분 만에 사무실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범인들이 유류저장소 내부사정에 밝은 것으로 보고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범인들이 범행에서 현금

을 탈취해 달아나기까지 불과 2분여 밖에 걸리지 않은 점으로 보아 동종 전과자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인근 우범자와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교통사고 과실 착각 형사합의금 줬어도 무혐의뎌 돌려받을 수 있다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면 합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4일 버스 운전기사 박모(52)씨가 손모(7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합의금 반환소송에서 '손씨는 박씨에게 받은 합의금 1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구례군 마산면 냉천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중 손씨의 아내가 운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손씨의 아내는 숨졌고, 박씨는 손씨에게 합의금 1천20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다. 그러나 광

주지검 순천지청은 손씨의 아내가 좌회전 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바람에 버스과 충돌했다'며 박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애초 형사처벌을 우려해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합의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해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오인해 형사합의금을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며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형사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 됨에 따라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육가공·유통업체 'AI 직격탄'

닭·오리 매출 뚝...일부 매장 판매 중단

전북지역에 이어 영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AI의심 폐사가 잇따르면서 수출과 내수길이 막히고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역 육가공업체와 유통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또 광주·전남지역 닭·오리 관련 음식점과 치킨집 등도 떨어진 매출로 인해 종업원을 내보내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수출·내수 막힌 육가공업체 = 광주·전남의 대표적 닭·오리고기 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는 이번 영남발 AI 여파로 가금류 소비가 급감하면서 하루 매출이 20~30% 떨어졌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이달에만 28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도 당초 예상보다 300만달러 가량 감소하는 등 AI의 '직격탄'을 맞았다.

◇미트·백화점 매출 급감 = 지역 유통업체도 AI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영남에서 AI가 확인된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닭·오리 판매량이 평소보다 30~40% 줄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6일 전북에서 AI가 확인된 이후 매출이 15% 가량 감소한 데 이어 13일에는 닭 판매량이 평소 280마리에서 170마리로 급감했다. 오리 판매도 평소의 절반 수준인 17마리로 떨어졌으며,

계란 매출까지 20% 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닭·오리 납품업체를 기존 (주)화인코리아와 (주)하림에서 충청권 소재 업체로 대체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도 지난 10일부터 오리고기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또 닭고기의 경우 지난 13일 불과 150마리 팔리는 매출이 평소보다 40% 가량 줄었다.

◇음식점 매출 '뚝'... 종업원 퇴출까지 = AI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7일부터 닭·오리 관련 음식점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9개의 통닭 체인점을 운영하는 N치킨의 경우 지난주 매출이 50% 가량 감소했다. 광주시 서구 양동 Y통닭의 경우에도 매출이 70% 가량 감소했다.

오리관련 음식점의 타격은 더욱 심하다. 광주시 동구 지산동 S음식점은 하루 매출이 80% 이상 감소했고, 북구 임동 Y음식점, 서구 화정동 S음식점 등도 모두 80% 가량 매출이 줄었다.

S음식점 관계자는 "10년간 일해 왔는데 지난주처럼 예약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김필성기자 choice@



텃빈 오리 판매 코너

영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AI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시내 한 백화점이 오리 고기 판매를 중단하면서 식품코너의 오리 판매대가 텅 비어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채권자에 무고혐의 씩은 건설업자

검찰 끈질긴 추적 끝 붙잡아

납품 편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빌린 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채권자를 무고 혐의로 내몬 50대 건설업자가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덩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주임검사 박석재)는 14일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허위 참고인들을 내세워 고소인을 오히려 무고 죄를 덮어씌우려 한 이모(5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를 도운 강모(45)씨와 김모(여·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해 "사공중인 아파트와 호텔 등에 74억원여치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유모(여·59)씨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유씨가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강씨와 김씨를 끌어들여 유씨를 무고 혐의로 내몰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의 필체와 서명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치밀한 증거와 일관된 참고인 진술을 내세웠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완벽한 증거와 증언에 고소인이었던 유씨는 꼼짝없이 무고 사범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하던 중 이씨가 유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정작 사기죄로 고소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 등을 집중수거 등을 판매하는 유모(여·59)씨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연탄불 갈다 붙붙어

80대 할머니 참변

아들과 함께 남의 집에 세들어 살던 80대 노인이 연탄불을 갈다 불에 타 숨졌다.

지난 13일 오후 1시3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사는 한모(여·80) 할머니가 몸에 불이 붙어 고름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한씨가 입고 있던 나일론 소재의 옷은 불에 타 있었고, 주변에는 연탄이 달린 연탄집게가 있었다. 경찰은 한씨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가족 등의 말에 따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연탄불을 갈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딸에게 용돈 타러 납치 허위신고



◇50대 남성이 딸에게 용돈을 타려고 납치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이 1시간 동안 수색에 나선 등 한바탕 소동.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14일 새벽 0시 40분께 북구 우산지구대를 찾아가 "딸(22)과 8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납치돼 알매장 당한 것 같다"며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신고 받은 경찰은 A씨의 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1시간 뒤인 이날 새벽 2시께 A씨의 딸로부터 '아버지의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았다.

◇담담 경찰은 "기초수급자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돈을 달라'고 자주 떼를 쓰자 화가나 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